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金 光 雲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머 리 말
- 전쟁의 발발과 게릴라전에 의한 제2전선 구축 시도
- 게릴라부대의 대연합부대 조직과 활동
- 게릴라전의 성격과 의의

1. 머 리 말

한국전쟁기 남북한 게릴라들의 비정규전과 제2전선 구축문제는 전쟁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전쟁이 단순한 '전선에서의 전쟁'이 아니었으며, 게릴라전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었기 때문이다.¹⁾

1)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차성수·양동주 역), 1989,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48 쪽.

1950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전황은 역전되었다. 경상도까지 밀려났던 국군과 미군은 인천상륙작전과 병행하여 각 전선에서 대규모 반격전을 개시하였다. 1950년 9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에서 복진한 국군과 인천상륙에 성공한 부대들이 합류하면서 북한군의 퇴로를 막을 수 있었다. 북한군 제4, 제6, 제9, 제10사단은 전후방을 차단 당한 채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북상을 기도하였다.²⁾ 위기에 빠진 북한 지도부는 후퇴하는 북한군에게 제2전선을 구축할 것을 명령하였고 각 당 단체들과 당원들에게는 주민을 동원 조직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전쟁수행 능력이 국군과 유엔군에 비해 크게 떨어졌던 기본전선의 북한군에게는 후방 교란의 목적을 지닌 게릴라의 존재가 중대한 과제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게릴라전'이란 정규군이 아닌 주민 등으로 주력을 이룬 집단이 적의 통치지역이나 강점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적을 타격 섬멸하는 전투형태를 말한다.³⁾ 소규모 전투를 뜻하는 에스파냐어에서 비롯된 이 말은 19세기 초 나폴레옹군의 침입에 대하여 스페인 국민이 각지에서 일으킨 저항전을 가리켰다. 그런데 한국전쟁기 북한이 이끌었던 게릴라전은 같은 시기 반공유격대의 활동과 달랐으며,⁴⁾ 다른 전쟁들에서 보여졌던 게릴라전과도 위상 및 성격이 크게 다른

2) 陸軍本部戰史監室, 1954, 『共匪討伐史』 31 쪽.

3) 게릴라부대는 지역주민의 지지 협조가 있을 때야만, 전투 수행에 필요한 정보·인력·보급·무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점에서 이른바 '匪賊'과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게릴라전을 진압한 세력에 의해 붙여진 이름보다는 수행주체 자신들이 선택한 이름으로 서술하였다.

4) 한국전쟁기 반공유격대가 결성되어 북한 연안과 내륙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현충원 유격부대전적위령비에는 "30여개부대, 4만여명에 달했던 각 부대는 군사정보수집, 공수특공작전, 조종사 구출, 동·서해 제해권 확보 등 적의 병참선과 후방교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국립현충원 유격부대전적위령비 비문). 그러나 미국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 청년단 단원들과 다른 적격의 남자들은 공산당 점령지역에서 특수기관을 창설하도록 무장되어 보충되었다. 그러한 게릴라병력은 공산당 배후 지역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의 통솔력의 부재에

새로운 형식의 전쟁이었다.⁵⁾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북한군은 정규전에 게릴라전을 배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이승만정권과 미국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전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전쟁은 제1전선만이 아니라, 제2전선(게릴라전쟁), 제3전선(포로교환문제·심리전·이데올로기전 등)에 걸쳐 전개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거의 무시되거나 축소되어 왔다.

전쟁기 게릴라전과 관련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간사로는 1954년 대한민국 육군에서 발간한 『공비토벌사』가 대표적이다. 이 책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어려운 對遊擊戰法에 관한 허다한 戰訓을 軍内外에 널리 선포”하고자 토벌작전 중의 군사상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후 1971년에 육군본부에서 『共匪沿革』을 간행하였으며, 1988년에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토벌부대의 전투상보 등을 활용하여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게릴라전에 대한 총괄적인 참고서적으로 『對非正規戰史』를 출간하였다. 그런데 이 저서들은 모두 진압군의 입장에서 대게릴라작전을 위주로 서술됨에 따라 실제 게릴라 조직의 편성과 활동을 밝히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한편 당시 남로당원들이 발표한 글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⁶⁾ 이것 역시 게릴라전의 성

기인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795B.5/1-1951 The Secret of Defense to the Secretary of State Enclosure :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 of Defense*).

5) 1950년 12월 1일 클럽 중국과장이 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에게 낸 「중공의 한국개입-대항전략」 보고서에는 “..... 불만과 동요가 틀림없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고조되리라”는 것이다. 유엔군이 지나쳐 버린 북한 게릴라들은 이미 남부와 중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공군은 벌써 기존전선을 뚫었으며, 북과 남에서의 게릴라전은 규모가 커지면서 한층 치열해지게 될 것이다. 안팎에 적을 둔 전선이란 대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당시 전혀 새롭게 전개되는 전황을 요약하였다(795.00/12-150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Chinese Affairs(Clubb) to the Assistans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Rusk)」).

6) 이승엽, 「원썬들의 '동기토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웅한 남반부 인민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근로자』 1950년 제6호. ; 이기석, 「남반부 인민유격대의 영웅한 구국투쟁」, 『인민』, 1950년 8호.

과를 왜곡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1989년 김남식은 남로당 지도부가 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1950년 초 왜 그것이 거의 전멸 당했는가의 문제를 밝혀 내고 성격규명과 평가까지를 시도하였다.⁷⁾ 이 논문은 이 방면의 최초의 객관적 학술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게릴라전이 본격화된 한국전쟁기를 다루지 않았다.

한편, 북한당국은 게릴라전의 중요성과 의의를 일찍부터 높이 평가해 왔다. 예컨대 김일성은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맑고 해안선이 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 정규전과 유격전을 윗게 배합하면 비록 최신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국해방전쟁이 이것을 증명하여 주며”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강조하였다.⁸⁾ 관련서적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돼 왔던 한국전쟁시기 게릴라전에 대하여 최근 본격적인 연구서도 출판되었다.⁹⁾ 그런데 38도선 이북지역에서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¹⁰⁾ 되었다고 평가하는 게릴라전만을 취급할 뿐, 이남지역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50여년이 지난 지금 남한에서의 게릴라전에 대한 기억은 “북에서는 버림을 받고 남에서는 저주를 받아야 했던 최후전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¹¹⁾ 일반적으로는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낭만주의자들의 패배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 민족수

7) 김남식, 1989, 「1948~1950년 남한내 빨치산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8) 「김일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의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년 11월)」, 일찍이 김일성은 1931년 12월 16일 연길현 명월구 회의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할 방침을 제기한 바 있었다(김일성,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할 데 대하여」(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 1931년 12월 16일). 이후 항일유격대는 자체 역량을 보존하면서 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으로 게릴라전을 발전시켜 나갔다.

9) 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10) 『김일성전집』 12권, 461쪽.

11) 이영식, 1988, 『빨치산』, 행림출판, 7~8쪽.

난사의 허망한 기록으로 기억되기에 이르렀다.¹²⁾

이렇듯 남과 북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게릴라들의 실체는 무엇이었으며, 역사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시기 게릴라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조명하면서,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전개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현 단계 북한당국의 군사전략을 이해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게릴라전은 상대측의 수적·기술적 우세를 격파하기 위한 북한군의 기본 군사전략이기 때문이다.¹³⁾

2. 전쟁의 발발과 게릴라전에 의한 제2전선 구축 시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당국의 전략적 기본과제는 “남한 전역을 점령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¹⁴⁾ 군사전략의 기본계획은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남진에 배합하여 유격대와 지하당 조직들을 각종 투쟁으로 총궐기시켜 배후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주력군의 진격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원 보장하여 속전속결 방식으로 단시일 내에 남한의 전지역을 점령,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¹⁵⁾ 이 같은 전략에 근거하

12) 이 같은 분위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태의 『남부군』과 이문열의 『영웅시대』이다.

13) 19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현대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이후 게릴라전은 북한군의 기본 군사전략으로 자리잡았다.

14) 김일성,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1950. 6. 26. 방송연설) 참조.

여 김일성은 게릴라 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남한 유격대들이 유격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며 유격대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망라하여 해방구를 창설 또는 확대하여야 한다. ... 후방을 타격하며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전선과 후방의 연락을 끊어버리며,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며 인민군대의 작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⁶⁾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노동신문』 등은 보성·함양·산청·부산·마산 등 남한내 주요 도시에서 북한군의 남하에 호응하여 ‘인민유격대운동’과 ‘인민봉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⁷⁾ 1950년 7월 1일에는 전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북한군 전사, 사관, 3급군관들에게 전사의 영예훈장 제1, 2급을 제정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유격대원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남한내 잔존 게릴라세력의 후방교란 활동을 기대한 조치였다. 나아가 1950년 7월 7일에는 북한군 지휘관 및 유격대 지휘성원들에게 자유독립훈장 제1, 제2급을 제정하는 정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⁸⁾ 1950년 7월 8일, 김일성은 방송연설을 통해 유격대들에게 도로와 철교, 교량, 통신망 등을 파괴하여 병력이동과 무기,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시킬 것을 재차 독려하였다.¹⁹⁾

당시 북한이 게릴라전을 중시한 데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게릴라를 활용한 제2전선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력 상당 부분을 묶어 놓았던 것이다.²⁰⁾ 당시 상황에 대하

15) 위의 자료 참조.

16) 『노동신문』, 1950. 6. 27.

17) 『노동신문』, 1950년 6월 30일자.

18) 『김일성전집』 12권, 80쪽.

19) 김일성은 “남반부 인민들과 빨치산들은 도처에서 자기들의 군대이며 해방자인 인민군대를 환영하였으며 모든 곤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경북·경남·전남에서 활동구역을 확대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김일성저작집』 6권, 188쪽).

20) “공산주의자들은 훈련받은 소규모집단을 남한에 침투시켜 게릴라부대를 조직케 하여 20

여 주한 미대리대사 드럼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²¹⁾

지난 주말 한국군은 3월 25일경 강원도 오대산지역에 침투한 600 명 이상의 북한 게릴라 잔당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분쇄하였다. 4월 21일과 22 일에는 게릴라 70명이 살해되었고, 이중에는 지도급의 김무현이 포함되었으며, 24명을 체포하였다. 3 주 이상 간헐적으로 저항해 온 김무현 일당에 대한 작전의 성과는 사살 237명, 생포 47명, 소형화기 172정, 자동화기 12정, 3문의 박격포 노획이다. 김무현부대는 한국군이 지금까지 싸워본 가장 잘 훈련된 집단이었다. 대단히 험준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로 한국군 전사 57명, 부상 164명, 실종 5명이라는 사실로 증명된다.

북한은 전쟁 발발 직후 남한에 산개중이던 게릴라부대와 지하조직들을 우선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먼저 각도 전투조직수습재건공작 지도성원들을 침투시켰는데, 충남 이주상·여운철·곽해봉, 전남 김백동·김병제·김광일·최상익, 전북 박승원·고병환·김재복, 경남북 강영순·조봉래·정영달·김재옥·장운철 등이었다. 이들은 선박을 이용해서 서해와 동해로 침투했다.²²⁾ 1950년 6월 10일에는 유격구 건설을 목적으로 김달삼이 지휘한 250명의 게릴라부대가 경북 청도의 운문산에 침투하였다. 6월 24일에는 남도부와 강철이 각각 이끄는 게릴라부대가 함정을 이용하여 포항과 울진에 침투하였다.²³⁾ 동부지역으로 파견된 게릴라들은 뒷날 정규군과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명에서 200명 단위의 지역공작을 개시하고 있다 …… (남한당국은 이 작전에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필립 제섭 대사의 비망록(1950. 1. 14)』 『FRUS』 1950, 4~5쪽).

21) 『드럼라이트 대리대사가 국무장관에게(1950. 4. 25)』, 『FRUS』 1950, 47~48쪽.

22)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440~442쪽.

23) 766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대 명칭이 '766군부대'로 불렸다. 당시 남도부는 맹장수술을 받고 건강이 채 회복되기 전이었으며, 단시일에 여러 방면에서 부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규율이 약했다고 한다(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442~443쪽).

북한군의 공격에 편승하여 급조된 게릴라부대가 웅진, 강릉, 춘천 등지의 전투에서 정규군의 작전에 참가하였다.²⁴⁾ 그외 지리산의 이현상부대는 대구 주변의 미군 통신부대를 공격하였고, 경북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부대는 영천의 미군 포진지를 습격하였으며, 강정수가 지휘한 동해안유격대는 봉화에서 경찰관 2백여 명을 살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북한군 진격에 호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남한 각 지역의 지하에 잠복해 있던 게릴라부대와 지하조직들이 와해된 채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전쟁 발발 직전 북으로부터 새롭게 파견되었던 게릴라부대 역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초토화되기는 사정이 마찬가지였다.²⁶⁾

조선노동당 정치위원회는 1950년 6월 27일 “적의 후방에서 빨치산부대들과 그루빠들은 적들의 교량, 도로, 전신 전화시설을 파괴하고 적군의 이동과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을 방해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적군에 극히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면서 빨치산전투를 곳곳에서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⁷⁾ 서울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정규군에 앞서 전진 배치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8일 형무소에서 풀려난 남로당원을 중심으로 30사단(사단장 : 윤상철)과 31사단(사단

24) 이기석, 「남반부 인민의 영웅한 구국투쟁」, 『인민』, 1950년 제7호.

25) 이와 관련하여 1950년 1월 14일에 작성한 필립 제섭 순회대사의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이범석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두 개의 문제는 인플레이와 공산 게릴라를 토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무초대사가 끼어들어 한국 정부는 공산 게릴라 소탕전을 잘 치러내고 있지만 인플레이문제에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말했다. 공산게릴라 집단에 대한 소탕작전은 훌륭히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의 상당수가 완전히 제거됐다. 그러나 소탕작전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투입한 작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이 작전에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다”(611.95/1-1450 Memorandum by the Ambassador at Large, Philip C. Jessup)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對非正規戰史』 148 쪽

27)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편지(1950년 6월 27일)」, 『당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1947. 8~1953. 7)』.

장 : 허성택)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기본전선을 뛰어넘어 호남지역에 제2전선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정규군의 뒤꼬리만 밟을 뿐이었다. 그 결과 제2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전주에서 정규군에 편입되어 의용군총사령부(총사령관 : 이기석, 부사령관 : 허성택)로 개편되었다. 각 지방에서도 의용군여단을 편성하여 전투에 투입시켰다. 즉 경북에서는 안동여단(30 여단), 충남은 대전여단, 전북은 전주여단, 전남은 광주여단 등으로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강제 징모된 청년학생들의 수는 40 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²⁸⁾ 김일성은 1950년 8월 15일 「명령 제82호」를 통해 게릴라투쟁을 다시 한번 적극 강조하였다.²⁹⁾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박헌영도 방송연설을 통해 유격부대들이 공격전으로 전환하여 후방과 전선을 교란할 것을 호소하였다.³⁰⁾

미군은 대전전투에서 북한 정규군에 의한 공격과 함께 게릴라들의 측면과 배후 공격을 받고 크게 당황하였다. 미군은 병력의 집중과 명확한 전선 및 완전한 후방을 갖춘 통상의 야전 조건하에서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이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게릴라는 그것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미군은 대전전투를 치르고 퇴각하면서 게릴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³¹⁾

28)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450~452 쪽

29) 김일성은 “남녀빨치산들은 미국간첩자들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강화하며 적의 통신수단을 파괴하며 적의 참모부대와 전투기재를 분쇄하라. 우리 조국을 침해하는 강점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라”고 명령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명령 제8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01,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149쪽).

30) 「남반부의 노동당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동지의 방송연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01,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132쪽.

31)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686~690쪽.

3. 게릴라부대의 대연합부대 조직과 활동

(1) 전세의 역전과 도당별 유격대 조직

한국전쟁의 전세가 역전되고 북한군이 후퇴하자, 북한 지도부는 주력군의 전략적 후퇴와 재진격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제2전선의 형성을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9월 27일 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설, 10월 6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의 결론, 10월 11일 방송연설, 10월 17일 강원도당 위원장예의 지시, 11월 17일 제2군단장예의 지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게릴라전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전선부대들이 각개격파 당하지 않도록 집단방어를 조직하며 이와 함께 기동방어를 잘하여 적에 대한 끊임없는 타격을 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월 27일의 연설에서 “각급 당 단체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불러 일으켜 유격투쟁을 대담하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적의 지휘부를 기습 소탕하고 보급선을 끊으며 적의 통신수단들을 파괴하고 군수창고들과 각종 군사시설물들에 불을 질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도당 위원장들은 후퇴시에도 자기의 관할지역을 떠나지 말고 지하에 들어가 게릴라전을 지도하며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여 북한군 재진격 때 힘을 합쳐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³²⁾ 이러한 조치는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한 지역의 당원들과 주민이 유격대를 조직하여 후방을 타격 교란함으로써 최전선의 북한군이 용이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³³⁾

이에 호응하여 당 조직과 민청 조직 등은 지역방어를 위해 적위대·자위대·청년근위대 등 무장부대를 구성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지연시키

32) 김일성,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전집』 12권, 327~328쪽.

33) 김일성, 「새로운 반공격 준비를 철저히 갖추자(1950. 10. 30)」, 『김일성전집』 12권 371쪽

는 한편 북한군 주력의 후퇴를 지원하였다.³⁴⁾ 게릴라전의 도움을 받은 북한군 주력부대들은 류경수, 김경석, 최현, 오백룡 등의 지휘아래 연합부대 단위로 포위망을 뚫으며 후퇴하였다.³⁵⁾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P통신은 “남부전선의 인민군이 어떻게 유엔군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 것은 戰局의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거의 하루 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보도하였다.³⁶⁾

인천상륙작전 몇 주 후, 맥아더는 “몇 백명 단위에서 몇 천명 단위에 이르는 공산게릴라들이 유엔군 점령지역내 고립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다. 현재 유엔군의 거의 30% 정도가 그들로부터 보급선과 주요 도시를 방어하는 데 투입되어 있다”고³⁷⁾ 게릴라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기까지 하였다.

10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각급 당단체 책임일꾼들이 내무기관과 군사동원기관의 구성원 및 특별자위대원들을 핵심으로 유격대를 조직하고 후퇴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과 함께 유격전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새롭게 임명된 각 도당 책임간부들은 다음과 같다.³⁸⁾

서울시 당위원장	김응빈(소련고급당학교)
부위원장	한창근(당중앙위원회 조직부 책임지도원)
경기도당위원장	박광희(소련고급당학교)
부위원장	김광의(당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
충북도당위원장	이성정(소련고급당학교)
부위원장	정혜수(당조직부 책임지도원)

34) 김남식, 1979,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540~542쪽. 1950년 10월에서 11월까지 조직된 청소년근위대는 평양시 4, 평남 6, 평북 6, 강원 11, 황해 8, 함남 18, 함북 9로 합계 62개였다(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170쪽).

35) 강석희, 1993, 『조국해방전쟁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4~85쪽.

36) AP통신, 1950년 9월 27일자

37)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차성수·양동주 역), 1989,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48쪽.

38) 김남식, 1979,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529~530쪽.

충 남 도당위원장	박우현(소련고급당학교)
부 위 원 장	유영기(황해도당 조직부장)
전 북 도당위원장	방준표(소련고급당학교)
부 위 원 장	조병하(함북도당 조직부장)
전 남 도당위원장	박영발(소련고급당학교)
부 위 원 장	김선우 / 김향선(평북도당 조직부장)
경 북 도당위원장	박종근(소련고급당학교)
부 위 원 장	이영삼(함남도당 조직부장)
경 남 도당위원장	남경우(소련고급당학교)
부 위 원 장	김삼홍(평남도당 조직부장)

도당위원장에는 남로당 출신 간부들로 1948년 소련고급당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부위원장에는 합법적 당조직사업경험이 풍부한 중앙당 조직부 책임지도원과 각도당 조직부장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각 도당 지도부는 도내 지정된 산악지대로 도내 당조직들을 이동시키는 조치들을 취했다. 유격대 편성에는 지방 출신의 당원·맹원·간부들과 북에서 파견되었다가 정규군을 따라가지 못한 정치공작대원(당간부, 정권기관·사회단체 간부,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들도 참가하였다.

10월 11일 김일성은 방송연설을 통해 전쟁상황이 불리하여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① 당조직들은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전환 개편시킬 것, ② 미군이 상륙 진주할 때 지주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것, ③ 군사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파괴할 것, ④ 산간지대에 식량과 기타시설, 설비들을 소각 비축 은닉시키고 쌀 한 알도 미군에 넘겨주지 말도록 할 것, ⑤ 유격전 야산대활동 경험자와 입산하여 유격전 참가가 가능한 당원들은 전원 입산시켜 유격대에 참가시키고, 그렇지 못한 인원들을 남 강원도 지역까지 조직적으로 후퇴시킬 것, ⑥ 입산한 간부 당원, 맹원들은 전원 유격대 조직에 참가시켜 유격대를 편성하고 도당지도부의 지도 밑에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³⁹⁾

또한 김일성은 10월 17일에 도당, 도인민위원회와 도내무부 간부들로 강원도유격지휘부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10월 29일에는 함경북도 당위원장에게 빨치산 조직을 지시하는 전보를 보냈다. 이어서 11월 17일에는 제2군단장 최현에게 제2전선부대들이 유격대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군단의 통일적인 지휘아래 활동할 것을 계속 독려하였다.⁴⁰⁾

게릴라부대는 지역별로 조직되었는데, 전선에서 가까운 강원도와 황해도부터 조직되었으며, 한반도 전체가 전선으로 된 조건에서 순차로 확대되었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10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구월산 인민유격대와 곡산 인민유격대가 조직되었으며, 이후 지남산 인민유격대, 설화산 유격대, 국사봉 유격대 등이 조직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10월 상순에 철원 인민유격대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중순까지는 인제, 양구 인민유격대 등이 조직되었고 뒤이어 여러 군들에 게릴라부대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함경남도에는 도유격대 지휘부가 구성되고 고원을 비롯한 각지에 게릴라부대가 조직되었으며 평안남북도 지역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일대까지 북진하자 영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게릴라부대가 조직되었다.⁴¹⁾ 38도선 이북 지역의 유격대 결성상황은 <표 1>과 같다.⁴²⁾

새롭게 조직된 유격대들이 갖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연고지에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주민이 모여 결성한 것들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접한 지역이 서로 통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많은 경우 북한

39) 김일성,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하자」, 『김일성전집』 12권, 340~347쪽.

40) 『김일성전집』 12권, 416쪽. 강원도 유격대지휘부는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장, 정치위원, 총참모장, 참모, 호위병, 작전참모, 병기참모, 후방책임자 등의 직제가 설치되었다. 도유격대지휘부에서는 연천, 통천, 회양, 고성, 안변, 화천, 김화, 양양, 철원 등지에 성원을 파견하여 유격대 결성사업을 이끌었다(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36~37쪽).

41) 강석희, 1993, 『조국해방전쟁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1~116쪽.

42) 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48~49쪽.

<표 1> 1950년 10월 이후 새롭게 결성된 유격대

조 직 명	일 자	조 직 명	결성일자
인제금강인민유격대	10. 5	회양인민유격대	10월
원산인민유격대	10. 8	이천인민유격대	10월
철원인민유격대	10. 8	김화인민유격대	10월
문천인민유격대	10. 13	세포유연인민유격대	10. 12
고성인민유격대	10. 13	평강인민유격대	10월 중순
안변인민유격대	10. 15	대성산인민유격대	10. 16
양구인민유격대	10. 17	평강인민유격대	10월 중순
양양울산인민유격대	10. 17	화천인민유격대	10. 25
통천인민유격대	12. 5	정주인민유격대	10. 17
신양군인민유격대	10. 16	용문인민유격대	10. 21
개천인민유격대	10. 19.	박천인민유격대	10. 23
용강인민유격대	10월 중순	철산인민유격대	10. 23
맹산인민유격대	10. 23.	오봉면인민유격대	10. 25
영원인민유격대	10. 24	서면인민유격대	11. 5
성천인민유격대	10월 하순	팔원인민유격대	11. 10
만년노동자유격대	10.13	국사봉인민유격대	10월 하순
동춘면인민유격대	10. 14	곡산인민유격대	11. 6
지남산인민유격대	10. 18	구월산인민유격대	10. 26
천곡면인민유격대	10. 23	설화산인민유격대	11. 17
고원인민유격대	10. 19	신흥인민유격대	10. 28
금야인민유격대	10. 19	단천인민유격대	10. 30
정평인민유격대	10. 21	리원인민유격대	10. 31
함주군인민유격대	10. 15	향산인민유격대	10. 19
홍남노동자유격대	10. 13	장진인민유격대	11. 9
북청인민유격대	10월 하순	천남면인민유격대	11월 중순
홍원인민유격대	10. 22	삼남면인민유격대	11월 중순

군 연합부대의 직접적인 지도와 협조 아래 결성된 점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격부대들과는 다른 특징이었다.⁴³⁾

당시 제2전선부대들은 평강,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성천, 강동, 수안, 곡산, 신계, 시변리일대를 비롯하여 전선 동부와 서부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었다.⁴⁴⁾ 38도선 이북의 유격대들은 북한군 제2전선부대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활동했으므로 유격근거지를 꾸리는 것이 유리하였다. 그들은 제2전선 연합부대(부대장 : 최현)로부터 유격전술을 배울 수 있었고, 무기도 제공받았으며, 작전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근거지를 지탱점으로 하여 지역 주민과 연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군중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⁴⁵⁾ 구월산 인민유격대의 경우 훈련주관을 설정하여 유격전과 관련한 군사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유격대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군정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⁴⁶⁾

1950년 10월 중순 이후 게릴라부대의 군사활동이 보다 활발해졌다. 맹산 인민유격대는 11월 8일과 19일 동면에서 매복·습격을 통해 미군과 국군에 인적, 물적 손상을 입혔다.⁴⁷⁾ 문천 인민유격대는 10월 27일 신창리전투에서 50여 명을 살상 포로하고 무기 및 군수물자를 노획하는 한편 불잡혀 있던 150여 명을 구출하였다.⁴⁸⁾ 곡산 인민유격대는 12월 10일 동막동전투에서 미군 30명을 살상하고 탱크 1대와 포 2문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⁴⁹⁾

43) 『로동신문』, 1951년 1월 9일자

44) 제2전선부대들은 1950년 12월 말 현재 3,500㎞의 활동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239 쪽).

45) 『로동신문』, 1951년 3월 28일자

46) 군정학교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유격대신문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두고 전체 대원들과 간부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며 군사적으로 훈련하여 무기에 능숙한 사수가 되게 하며 전투에 민첩하고 대담하며 백전백승하는 필승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2차 정치위원회에서는 군정학교를 창립하기로 하고 11월 15일부터 개교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전한다(『필승』 제5호, 1950년 11월 11일자).

47) 『로동신문』, 1951년 1월 7일자

48) 『근로자』, 1951년 4호.

49) 『조선중앙연감』 1951~1952년판, 414~415쪽.

게릴라부대들이 강원도 북부지역과 평안남도, 황해도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과 달리 38도선 이남지역의 사정은 달랐다. 서울시와 경인지구의 노동당 조직들은 미군의 인천상륙이 시작되자, 모든 당조직을 당위원장을 대장으로 하는 '무장특수자위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진격하는 미군에 저항하며 방어전투를 벌이다가 강원도지역으로 후퇴하였다. 여기서 약 2,500명으로 인민유격대(대장 : 김웅빈, 정치부 책임자 : 박승원)를 편성하여 소백산지대로 진출했다. 충남에서는 도당위원장 박우현을 대장으로 충남도당유격대를 편성하고 대둔산을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⁵⁰⁾

국군은 전선에 있어야 할 정규작전 부대를 후방지역에 투입하여 치열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1950년 10월 15일에 제3군단 군단장 : 이형근)을 창설하고, 강원도와 영남 그리고 호남에서 조직적인 대게릴라작전을 전개해 나갔다.⁵¹⁾ 국군 제9사단(사단장 : 오덕준)은 소백산맥과 대둔산 일대의 토벌작전을 통해 게릴라 2,125명을 사살하고 259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다.⁵²⁾ 38도선 이남에서 조직된 게릴라들은 추상적인 목표 혹은 전략은 갖고 있었지만, 전투에서의 적절한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남한에서 전개된 게릴라전은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전투속에 분산되어 혼적조차 없게 되었다.

한국전쟁기 게릴라부대들은 타국에서처럼 자연발생적 봉기에 원류를 둔 무장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당조직이 나서서 의식적으로 군사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근거지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동하였던 것이다. 전북에서는 도당위원장 방준표의 지휘하에 회문산으로 도내 당

50) 휘하에 백두산부대·대덕부대·대진부대·한둔산부대·가야산부대·압록강부대·청천강부대·통신부대·정찰부대 등을 편제하였다.

51) 제3군단의 전투편성과 지휘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군단장 이형근, 제2사단 사단장 함병선, 제5사단 사단장 민기식, 제9사단 사단장 장도영→김종오→오덕준, 제1사단 사단장 최덕신, 유격사령부 사령관 김관오(정석균, 1988, 『對非正規戰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55쪽).

52) 정석균, 1988, 『對非正規戰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63~166쪽.

조직들을 집결시켜 전북도유격대(사령관 : 방준표, 부사령관 : 조병하)를 편성하였다.⁵³⁾ 충북에서는 도당위원장 이성경의 지휘하에 각 군당별로 군유격대와 도당 직속부대를 편성하여 활동하였다. 경남에서도 도당위원장 남경우의 지휘하에 지리산에 입산하여 인민유격부대, 303부대, 102부대, 불꽃사단 등으로 명명된 유격대를 편성하여 경남 서북부 산악지대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전남에서는 도당위원장 박영발의 지휘하에 북부는 백운산, 남부는 월출산으로 입산, 집결시켜 지역별로 전남도당유격대를 편성하고 백아산에 도당지휘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경북에서는 도당위원장 박종근이 지휘하는 도당유격대와 한국전쟁 직전에 북에서 침투한 남도부유격대가 활동하였다.⁵⁴⁾

국군 제11사단(사단장 : 최덕신)은 1950년 10월 4일부터 ‘호남·지리산 지구작전’에 돌입하여 예하 제9연대를 전남으로, 제13연대를 전북으로, 제20연대를 지리산지구로 각각 분산 배치하고, 5개 경비대대와 경찰 그리고 청년방위대까지 동원하여 대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살 1,950명, 생포 및 귀순 2,178명의 전과를 올린 반면, 전사 531명, 실종 85명, 부상 84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⁵⁵⁾

국군 제3군단의 대게릴라 토벌작전은 1950년 12월 10일 동 군단이 양평으로 이동하여 전선에 투입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3군단의 효과적인 작전 결과 게릴라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리산빨치산당 김재연지대’는 1950년 11월 23일 당총회를 개최하고 당위원회를 선거하여 부대내에 당조직을 구성하였다.⁵⁶⁾ 당조직은 상급

53) 휘하에 이택부대, 보위부대, 백학부대, 돌진부대, 광산부대, 학도부대, 사령부직속부대, 전주유격대, 김제유격대, 임실유격대, 순창유격대, 완주군당유격대, 익산군당유격대, 금산군당유격대, 진안군유격대, 무주군당유격대, 장수군당유격대, 남원군당유격대, 정읍군당유격대, 고창군당유격대, 부안군당유격대 등이 있었다.

54) 김남식, 1979, 『실록 남로당』, 한국승평연구원, 543~544쪽.

55) 정석균, 1988, 『對非正規戰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69~174쪽.

56) 지리산빨치산당 김재연지대 당위원회, 『제1호총회회의록』(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써, “정치사령부로서의 당의 존재없이 또한 그의 지도와 방조없이 진행된 결과 우리 사업에 많은 부족점들과 결함을 가져온 사실들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⁵⁷⁾ 그런데 부대내에 당원으로서 당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지리산빨치산당 김재연지대의 경우 대원 가운데 조선노동당원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과거 당원이었던 사람이 104명 있을 뿐이었다. 그 가운데 당원으로 곧바로 재등록시킬 수 있었던 대원은 단지 24명에 불과하여, 당상급기관이 요구하는 ‘黨部隊委員會’와 ‘黨初級委員會’를 구성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지 실정에 따라 당원 심사원칙을 새롭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⁵⁸⁾ 지리산빨치산당 김재연지대는 1951년 1월 5일에도 ‘11호투쟁’을 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결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⁵⁹⁾

(2) 유격대 지휘체계의 정비와 남부군 구성

각지의 유격대들은 자기대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대원을 새롭게 보충하고 그들을 사상, 의식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조치들

『빨치산자료집』 1권, 3쪽.

57) 지리산빨치산당 김재연지대당위원회, 「조직위원회회의록」(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6쪽.

58) 당을 급속히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용된 당원 재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① 우리 당원으로서 투쟁하지 않아도 조국전쟁 개시 후 전선에 나가서 희생적으로 투쟁한 동무, ② 보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에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자로서 6·25 해방 이후 열성적으로 나와 싸운 동무, ③ 대한노총에 강제로 가입하였으나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당에 그들을 인입, ④ 과거 투쟁하다 선이 끊어진 동무에 대하여서는 그가 쉬는 동안 놈들에게 굴복치 않고 앞으로 자기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 ⑤ 임중한 과오를 범하였다 하여도 그가 새로이 과오를 인정하고 그를 시정키 위해 노력한 자는 후보당원으로서 1년간 경과한 다음 입당(지리산빨치산당 김재연지대 당위원회, 「조직위원회회의록」(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6쪽).

59)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당 김재연지대당부, 「제2호 상무위원회회의록」(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22~23쪽 참조.

이 되풀이 강조되면서 38도산 이북지역의 유격부대들은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강원도의 경우 게릴라부대 조직 초기에 1,564명이 참가하였는데, 해산시기에는 2,675명으로 성장하였다.⁶⁰⁾

유격대요가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유격대를 지휘체계를 갖춘 무장부대로 편성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예를 들어 금야인민유격대는 10월 19일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결성되었다. 10월 14일 금야지역에서 후퇴한 군대 당 및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장진군 유담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유격대를 정식 조직하고, 자격심사규정과 입대문제 및 각 지구부대의 임무 등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⁶¹⁾

한편, 1949년 하반기부터 지리산 지구에서 인민유격대 제2병단을 편성하여 유격전을 전개했던 '이현상유격대'는 북한군이 영호남지역으로 진격하자 하산하여 출신지방의 당·정 간부로 활동하였다. 일부는 이현상의 지휘하에 북한군에 합류하여 협동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북한군이 패주하자 이현상 부대는 다시 지리산지구로 입산하였다가 북으로 후퇴의 길을 택했다. 북으로 후퇴한 이현상부대는 1950년 11월 중순쯤 강원도 평강군 후평리 가래주에 당도했다.⁶²⁾ 이무렵 서울지도부 책임자로 있던 이승엽이 후평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⁶³⁾ 그는 당중앙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6개 도당에 대한 지도권한을 여운철에게 위임했고, 이현상에게는 유격대의 통일적인 지도권한을 위임했다.⁶⁴⁾

1950년 12월 18일을 전후하여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당'이 조직되었으며⁶⁵⁾ 후평리에서는 윤상철을 중심으로 '9·29부대'도 결성되었다. 이 부대

60) 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61쪽.

61) 『로동신문』, 1951년 3월 28일자.

62)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457쪽.

63) 당시 이들이 후퇴하던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경기도당 위원장 박광희, 남강원도당 조진성 등은 인민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고 뒷날 비판받았다(『조선중앙연감』 28쪽).

64) 김남식, 1979,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542~543쪽.

65)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당 김재연지대당부, 『제2호 상무위원회회의록』 한림대아시아문화

는 뒷날 '제6유격지대'로 개편되었으며, 정치부사령관은 김태송(임진환), 참모장은 최기열이었다. '제6유격지대'는 경기도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다.⁶⁶⁾

1950년 12월 3~10일까지 미국의 첩보사항은 게릴라의 출몰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다. 후방에서 재편된 게릴라부대는 정규군과 결합하여 작전을 펼칠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⁶⁷⁾ 38도선 이남의 게릴라 활동은 1951년 1월 중순에 가장 활발하였다. 미군 통합참모본부가 1951년 1월 17일에 제출한 보고서는 "적군 게릴라 부대는 남한지역에 넓게 산재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⁸⁾

후평리에서 편성된 조선인민유격대 (부대장 : 이현상, 정치위원 : 여운철)는 태백산맥을 타고 12월 말경에 충북 단양지구로 집결하여 경북 문경경찰서 기습 등의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제천지구로 이동하였다. 다시 속리산을 거쳐 덕유산에 이르러 남한내 6개 도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⁶⁹⁾

6개 도당 대표자회의의 결과 유격대와 지하당조직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각 유격대를 통합하여 남부군단으로 조직개편하고 이현상이 남부군단의 총사령관이 되고 부사령관에는 이영희가 선임되었다. 남부군단에는 충남도당유격대와 충북도당유격대 및 전북도당유격대, 경남도당유격대만 포함시켰고, 경북도당유격대와 전남도당유격대는 제외되었다. 당 조직체계에서는 6개 도당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남부지도부를 구성하고 여운철이 총책임자가 되어 지리산에 근거지를 설정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⁷⁰⁾ 그런데 당조직들이 유격대조직으로 되었

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18~19쪽 참조.

66)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령 No. 002(1951. 1. 2.), 「적후방에 있는 유격대들의 활동을 확대발전하는데 대한 명령」(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25~28쪽 참조.

67)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730~733쪽.

68) 795B.5/1-1951 *The Secret of Defense(Marshall) to the Secretary of State Enclosure :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 of Defense(Marshall)*.

69) 육본정보국, 1956, 『공비연혁』 7 쪽

기 때문에 당조직 활동이란 따로 있을 수가 없었다.

이현상은 남부군단 유격대 편제를 제1전구와 제2전구 및 사령부 직속부대로 개편했다. 제1전구에는 전북의 북부지역과 충남지역을 포괄하여 유격부대를 68사단과 45사단으로 각각 개편했다. 제2전구에는 전북의 남부지역을 포괄하여 유격부대를 46사단과 53사단으로 개편하였다. 사령부직속으로는 81사단·92사단·602사단, 경남지역을 57사단으로 개편시켰다.⁷¹⁾ 남부군단은 지리산에 병기수리소를 설치하고 탄환까지 만들었으며 병원시설도 갖추었다. 또한 연예대를 구성하여 유격부대에서 연극·노래 등의 활동을 벌였다. 무전기·라디오·등사기 등을 사용하여 출판물을 발행하면서 산하부대들과 통신연락을 취하기도 했다.⁷²⁾

한편, 1950년 12월 9일 김일성은 남한의 각 산악지대에 산재하고 있던 각 도당 산하 유격대들을 남조선인민유격대 각지대로 통합 개편하여 유격대 조직 및 지휘체계를 정비하도록 명령하였다. 북한군 정규부대도 제2전선을 강원도 산악지대에 형성하여 전투활동을 펼쳐 배후를 교란시키고, 주력군의 재진격에 배합하도록 조치했다.⁷³⁾ 이는 게릴라부대들이 제2전선부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게릴라전을 전개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시기 북한당국은 남한내 게릴라투쟁에 대하여 이전과 다르게 점차 평가 절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1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김일성은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는 축전을 띄웠지만, 빨치산부대원들에게는 어떠한 상응 조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그간의 게릴라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1950년 12월 21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김

70)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458쪽.

71) 정석균, 1988, 『對非正規戰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84쪽.

72) 김남식, 1979,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542~545쪽.

73) 이날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인민유격대 대연합부대가 적의 배후에서 타격중”이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은 연설에서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그리고 빨치산을 동시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김일성, 『평양시 해방에 즈음하여』, 『김일성전집』 12권, 434~437쪽).

일성은 군사정치정세를 분석하면서 이전과 달리 북한군의 영웅성만을 지적하였을 뿐이었다. 그는 보고를 통해 전쟁 개전 초기 남한지역 당사업과 빨치산투쟁의 약점을 지적한 후, 중앙위원 허성택 등이 빨치산투쟁조직에 대한 당중앙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⁷⁴⁾ 이 과정에서 북강원도당 위원장 림춘추가 출당을 당하기까지 하였다.⁷⁵⁾

(3) 6개 지대로의 재편

남부군단은 각 도당 게릴라부대를 재수습하여 통일된 지휘체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부대작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조직재편방침과 맞지 않았고 내부의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특정된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유격대'와 '전투지대'로 개편되었다.

먼저 1951년 1월 25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명령 74호」를 통해 150~300명의 인원으로 38도선 이남 7개 지역에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다. 「명령 74호」에 의하면, 생산유격대의 주된 임무는 “생산에 종사하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적정을 탐구 수집”하는 것과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선전공작으로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인민속에 깊이 침투”시키면서 “자기 활동구역 내에서 유격대와 협동하여 교량·철교·도로들을 파괴” 등이었다.⁷⁶⁾

74) 김일성은 결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적후방에 유격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공군이 약하고 기동성이 약한 조건 하에서 적의 기동성을 파괴하여 적을 분산 격멸하며 적의 참모부와 후방을 습격하여 적후방에서 제2전선을 조직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절단하여 적에게 공포와 당황을 초래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상, 작전상 의의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를 잘 실현하지 않았습니다.”(『조선중앙연감』, 1950년판, 27~28쪽).

75) 위와 같음.

76)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령 No. 74(1951. 1. 25.)(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29~30 쪽.

남한지역의 각 도당유격대들이 남부군단 산하 전구와 사단 편제로 개편되어 활동을 시작할 무렵,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인민유격대를 유격지대로 개편하고, 북한군 진격에 맞추어 제2전선 형성을 위한 유격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1951년 2월 8일 「명령 97호」에서는 “빨치산대연합부대”의 활약과 관련하여 “우리의 귀중하고 용감한 남녀 빨치산들의 대연합부대들은 적후방에 깊이 침투하여 빨치산투쟁의 불길을 일층 높이고 있으며 적의 참모부를 기습하며 적의 수송로와 통신연락기관들을 파괴하며 군수품창고들을 습격함으로써 패배한 적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치켜세운 후,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남녀 빨치산들은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부대의 진격을 성과있게 방조하며, 적의 참모부들을 습격하며, 적의 교통로와 통신수단을 파괴하며 적의 후방을 일층 교란시킬 것”을 명령하였다.⁷⁷⁾

1951년 2월 6일 김일성은 신화사통신 조선분사 대리사장 류계량과의 대담과정에서 유격대의 활동 정형을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⁷⁸⁾

경상남북도에서 활동하는 박종근유격대와 김원팔동무들이 지도하고 있는 유격대들은 수백여 명으로부터 수천여 명으로 달하는 대부대로 되어 대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남북도에서 활동하는 리현상동무가 지도하는 유격대들은 대연합부대로 되었다. 적들은 수 개 사단을 동원하여 그를 토벌하려 하지만, 유격대들의 맹렬한 활동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충청남북도에서는 대전 좌우를 중심으로 하고 윤

77) 김일성, 19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97 호」, 『근로자』 1951년 제2호, 16~19쪽.

78) 「김일성장군이 신화사 주조선분사 대리 사장 류계량 동지에게 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근로자』 1951년 제2호, 22~23쪽. 미 극동문제국의 Barbour와 Hackler가 작성한 「한국주재 대사들을 위한 브리핑」 자료에는 당시 유엔군 후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게릴라의 총수를 약 2만 8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795.00/3-65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Messrs. Barbour and Hackler of the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상철·김용암 부대들이 맹렬히 활동하였다. 유격대들은 그 지방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호 속에서 자기의 활동구역을 날로 넓히고 있으며, 일부지역들에서는 몇 개 면 혹은 몇 개 군들을 해방구역으로 창설하였다.

당시 게릴라부대의 후방교란활동은 습격과 도로차단을 반복하고 미 제 8군과 10군의 지상연결을 가로막으면서 동시에 양군의 측면배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⁷⁹⁾ 이에 당황한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리스크는 한국에 대한 가장 시급한 행동조치를 언급하면서 “38선에 근접하기 위해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한국군이 차지했던 방어요지를 강화해야 하며, 38선 이남지역의 게릴라들을 궤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⁰⁾ 국무차관 매튜 역시 합참의장 브레드리에게 보내는 1951년 2월 13일자 비망록에서 “만약 연합군의 주력군이 38선에 도달한다면, 38선을 따라 위치한 한국의 방어지점은 강화되어야 하며, 38선 이남지역의 게릴라들을 궤멸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¹⁾

게릴라전이 효과적인 제2전선으로 작용하는 것에 고무받은 북한당국은 1951년 1월 23일에 유자녀학원 설치를 결정하면서 빨치산 관련자들도 포함시켰다.²⁾ 1951년 4월 13일에는 「내각결정 254호」로 영예군인학원을 설치하면서 빨치산 관련자들도 포함시켰다.

1951년 4월 최전선이 38도선 일대에서 고착되면서 38도선 이남지역의 유격대들은 배후타격을 통한 전선교란을 목표로 당조직 활동을 중지하고 군사활동에만 치중하는 “유격대 군사유일제”로 개편됐다. 그 결과 도당 위원

79) 일본 육전사보급회, 1977, 『陸戰史集』 21, 原書房 152~153쪽.

80) 795.00/2-1151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Rusk)* ‘Outline of Action Regarding Korea’.

1) 795.00/2-1351 *Memorandum by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Matthews) to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Bradley)*

2) 「각도에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 설치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8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집 (1949. 7~1951. 12)』.

장들이 지대장 또는 정치부지대장으로 남한 유격대를 지역별로 6개 지대로 편성했다.

조선노동당은 소백산지구에서 활동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출신 당원, 간부들로 구성된 유격대는 인민유격대 제1지대로 개편하여 강원도 남북지대와 경북 북부지역을 활동범위로 했다. 제2지대는 충남북도당 유격대와 강원도 원주시 지방유격대로 편성하고 속리산, 영동, 계룡산을 거점으로 충남 북지역과 강원도 일부지역까지를 활동범위로 했다. 제3지대는 경북도당 유격대로 편성하여 일월산, 태백산을 거점으로 경북 남부지역과 경남 북부지역을 활동범위로 했다. 제4지대는 전라남북도당 유격대로 편성하여 지리산과 덕유산, 백운산, 운장산을 거점으로 전남북지역과 경남 서북부지역을 활동범위로 했다. 제5지대는 경남도당 유격대와 청도 동부지구유격대로 편성하여 운문산, 속리산, 관용산을 거점으로 경남의 중남부지역을 활동범위로 하였다. 제6지대는 충청남북도당 산하 유격대 일부와 강원도당 유격대 일부로 편성하여 대둔산 등지를 거점으로 충남북과 강원도 지역을 활동무대로 정했다.³⁾

노동당은 인민유격대 제1지대장 김웅빈(서울시당 위원장), 제2지대장 윤상철(충북도당 위원장), 제3지대장 박종근(경북도당 위원장), 제4지대장 이현상(남부군 사령관, 전북도인민위원장) 제5지대장 김원필(경남도인민위원장), 제6지대장 남충렬(충남도당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령부의 지령과는 달리 충남도당은 6지대로, 경남도당은 8지대로, 전북도당은 7지대로, 경북도당은 3지대로, 이현상 남부군단은 4지대로 되었다.⁴⁾ 개편 이후 게릴라전은 활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미군은 당시 게릴라 활동을 계속 관찰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1951년 5월 16일에 적은 서울의 북동쪽을 공격하고 춘천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전선을 가로질렀다. 게

3) 육본정보국, 1956, 『공비연혁』, 14 쪽

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령 No. 74(1951. 1. 25.)(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치산자료집』 1권, 31 쪽.

릴라활동은 수주만에 처음으로 남중부 한국에서 보고되었다”고 적고 있다.⁵⁾

한편, 유격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자체 제작한 신문은 지역 주민에게까지 일정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당시 각 유격대별로 간행한 신문을 살펴보면, 『승리의 길』(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기관지), 『경남빨치산』(경남빨치산사), 『앞으로』(동부지구당), 『붉은 별』(경남지구인민유격대 제7군단보), 『조국을 위하여』(전라북도 빨치산 총사령부 기관지), 『전남빨치산』(전남빨치산사), 『불갑산 빨치산』(불갑산빨치산사), 『무등산 빨치산』(무등산 빨치산사), 『돌진』(민주청년동맹 신고산지도위원회 기관지) 등이다.⁶⁾

(4) 당과 유격대 조직의 분리 활동

1951년 8·15 기념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은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양익으로 설정하였다. 과거 북한 무력의 양익 자리에 있던 빨치산은 그 자리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전선이 고착화된 변화된 정세에 근거하여 내려진 1951년 8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94호 결정」은 유격대 조직의 일대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당조직과 유격대 조직을 분리시켜 당조직체계를 지구당 체계로 개편하여 유격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유격지대를 대부대 단위가 아니라 중대단위로 개편하는 것이었다.⁷⁾ 결정서에서는 “한국전쟁 전의 당 단체는 영웅한 투쟁

5) 공산당의 봄 공격의 두 번째 국면은 5월 16일에 시작되었다. 5월 21일경, UN군 사령부는 이 공격의 흐름을 저지하고 공산당 병력에 큰 손상을 가했다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389를 보라).

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 6·7권 참조.

7) 지구당으로의 개편에서 제1지구당은 서울·경기 전지역, 제2지구당은 남강원도(울진군 제외) 전지역, 제3지구는 충남북지역(논산군 제외), 제4지구는 경상북도와 울진군 및 낙동강 이동의 경남 밀양·창녕·양산·울산·동래·부산지역, 제5지구당은 낙동강 이서 경남지역과 전남북 전지역 및 제주도와 충남 논산군지구 등으로 설정했다(육본정보국,

들을 전개했으나 결정적인 조국해방전쟁 과정에서는 자기 임무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수행하지 못했다. 전쟁 시작 후 1년 이상 경과했으나 빨치산투쟁은 결정적 성과를 쟁취하지 못했으며,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인민군대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군 내부에 의거운동과 와해를 일으키지 못했다. 이것은 당정치노선과 정책은 옳았는데 남한 안의 당조직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지하당 사업을 일층 강화하기 위해서 종래의 행정지역에 따른 조직체계를 일단 보류하고 잠정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각 지구조직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체 당사업을 지도하도록 하였다.⁸⁾

지구당 개편사업은 북측지역에 지구당 지도부가 있었던 제1, 2지구당은 1951년 9월에 개편되었다.⁹⁾ 그러나 남한지역에서는 정치위원회 결정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당한 시간차를 가지고 뒤늦게 진행되었다. 당중앙과 각 지대유격대 사이에 효과적인 통신연락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4·5 지구당 개편은 1952년 중반기에 진행되었고, 지리산에 근거하고 있던 5지구당 개편은 1952년 8월 말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정치위원회 결정이 있는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이다.¹⁰⁾

각 지구당 조직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1지구당조직위원회(서울 경기지역)는 황해도 봉산군 용연면 구룡리에 위치했다가, 1951년 10월 말 개성시로 이동하여 지하당 조직 재건을 시도했다. 그러나 많은 인적

1956, 『공비연혁』, 28~30쪽).

8) 이태, 1990, 『이현상』, 학원사, 277쪽.

9) 노동당은 유격대 지휘간부와 지하당 조직간부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기지를 전선인접지대에 신설하는 조치도 취했다. 1951년 10월, 황해북도 서흥군 월리면 오동리에 설치한 금강학원은 중앙당 연락부에서 직접 장악 운영했다. 금강학원의 기구와 간부 편성은 원장 김응빈, 정치부원장 송을수(전 강동학원부원장, 전 서울학원 원장, 후방부원장에 이인동(전 전평부원장, 노동당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부부장), 군사부원장 임희 전 인민유격대 제6지대 참모), 초급당위원회, 간부부, 기술부, 병원 등이었다(김남식, 1979, 『실록 남로당』, 한국승공연구원, 555~558쪽).

10)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1, 돌베개, 464~466쪽.

물적 피해만 내고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1952년 4월경에 해체하였다. 당시 제1지구당 조직위원장은 김점권, 부위원장 한창근·박원희였다. 제2지구당조직위원회는 강원도 내금강면 하현리에 위치하였으며, 1952년 5월에 해체되었다. 제3지구당조직위원회(충남북지역)는 1952년 5월 결성하였으며, 4지구당조직위원회는 이구형과 이영섭이 조직하였다. 제5지구당조직위원회는 1952년 10월에야 지리산에서 조직개편회의를 가지고 이현상을 위원장으로 박영발을 부위원장으로 개편하였다.¹¹⁾

북한 지도부는 정전이 예측되고 전쟁의 장기화도 예견되자 당사업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구당으로 조직 개편하는 조직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지구당으로 개편될 무렵에 남한내 잔존 유격대들은 전멸상태에 빠져있었다. 1951년 12월 12일 김일성은 문화예술인들과의 접견시 북한군의 영예와 성과만을 언급하였을 뿐, 빨치산투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의 형편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을 것이었다.

(5) 전선의 교착과 게릴라전쟁의 소멸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국군과 경찰의 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도 마무리에 들어갔다. 국군은 1951년 11월 25일 수도사단(사단장 : 송요찬)과 제8사단(사단장 : 최영희) 및 서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 김용배)로 백야전전투사령부(사령관 : 백선엽)를 설치하여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까지 4차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사살 5,009명, 생포 3,968명의 전과를 올렸다.¹²⁾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은 게릴라부대와 지구당 지도부는 지리산으로 집결하였다. 이들은 산악지대에 참호를 파고 대부대 진지전을 펼치며 자체

11) 이태, 앞의 책, 279~284쪽.

12) 정석균, 1988, 『對非正規戰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86~217쪽.

방어전투와 보존을 위한 보급투쟁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군경토벌대를 피해 서 지리산에서 회문산, 장안산, 덕유산, 백운산 등으로 전전하였다.

1952년 2월 초, 노동당 정치위원회는 「유격대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잔존 유격대 역량을 지리산으로 집결 보존하고, 제1·제6지대는 북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김응빈은 입북했지만, 윤상철은 사망하였다. 북으로 들어온 제1지대와 제6지대는 금강정치학원생과 함께 “박헌영·李承燁의 쿠데타”에 동원될 기간부대로 활용되었다.¹³⁾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지휘간부들을 대규모로 남파시켜 각 지구당 및 소지구당 지도부의 재건과 보강 및 지하당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공작을 본격화하였다. 전멸상태에 빠져든 유격대활동도 소부대활동을 기본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우선 산악에 은둔하고 있던 각 지구당조직들을 수습 보강하여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하당 조직공작원 파견침투에 선차적 힘을 돌렸다.¹⁴⁾ 그런데 침투시킨 유격대 간부성원 공작원들은 침투 도중 아군의 토벌대와 조우하여 사살되거나, 아니면 남한에 잔존했던 유격대와 함께 사살 또는 체포되었다.

1952년 10월 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기왕의 활동을 총화하고, 「미해방지역에서의 지하당조직들과 인민유격대들의 활동 정형과 나타나고 있는 편향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지하당 조직들과

13) 김운석, 『북한괴집전술문헌집』, 한국아시아반공연맹, 189쪽.

14) 각 유격지대 지휘간부 보강을 위한 소부대 침투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 제4지구당 산하 유격지대 지휘간부 보강을 위한 공작원 24명으로 '941부대'를 구성하여 1952년 8월에 동부연락소를 통해서 침투시켰다. 제3지구당 산하 유격지대를 되살리기위해서 49명으로 '100부대'를 구성하여 1952년 9월에 중부연락소를 통해서 승리산 지구에 침투시켰다. 역시 같은 시기에 제5지구당 산하 유격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공작원 50명으로 '921부대'를 구성하여 1952년 7월에 지리산지구에 침투시켰다. 1952년 10월에도 제3지구당 산하 유격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30명으로 '951부대'를 구성하여 진천지역으로 침투시켰다. 1952년 10월에는 20명으로 '911부대'를 구성하여 제4지구당 산하 유격지대를 되살리기 위해 침투시켰다(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1, 돌베개, 440~442쪽).

유격대들의 활동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과 결함들을 지적하고 시정대책으로 “지하당 지도부는 산 속에만 있지 말고 주요 산업지대, 농촌지대 등 노동자 농민대중이 있는 곳으로 공작무대를 옮겨가 노동자 농민 군인들 속에 당조직을 재건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각급당 지도부가 도시로 진출 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유격대활동 전술과 관련하여 대부대활동, 진지전에 치중하지 말고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며 기동적인 소부대활동을 조직할 것을 제시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지시 역시 당시 현실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우선 전선이 38도선 부근에 고착됨으로써 최전방의 국군 일부 병력이 후방으로 돌려져 대대적인 케릴라토벌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몇 년 동안 산 속의 유격대들이 농민들로부터 많은 식량과 금품 등을 보급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반감 내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대원들의 생포·투항이 많아 당조직과 유격대들이 급속히 파괴, 소멸되고 있었다.¹⁶⁾

각 지구당 지도부와 각 유격지대들은 10~30명 내외의 소부대로 개편하였다. 부대의 명칭은 소부대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¹⁷⁾ 소부대들은 자체생존을 위한 보급투쟁부대였다. 1952년 중반기 하반기에 이르러 지리산의 이현상, 박영발, 방준표 중심의 제5지구당 지도부와 그 산하 유격대 김사회부대와 이영회부대를 제외한 다른 각 지구당 지도부와 유격지대들은 거의 소멸되었다. 소부대로의 개편은 진행되었지만 노동당이 결정한 간부들의 도시와 농촌지역에의 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한내의 노동당 지구당 지도부와 유격대들은 북한군의 재진격을 기대하면서 군경의 토벌을 피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15) 『북한괴집전술문헌집』, 369쪽.

16) 육본정보국, 1956, 『공비연혁』, 35~36 쪽

17) 제5지구당 산하 유격대에서는 이영회부대를 천소부대·광소부대·안소부대·이소부대·윤소부대로, 김사회부대 산하에는 윤안상부대·강근석부대·조성기부대·송덕용부대, 그 밖에 박문학부대·송관일부대·소명호부대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태, 앞의 책, 274쪽).

1953년 7월 27일 휴전의 성립은 그들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4. 게릴라전의 성격과 의의

한반도에서는 1948년 하반기부터 한국전쟁 정전 직후에 걸쳐 게릴라전쟁이 펼쳐졌다. 그것은 처음부터 남조선노동당·조선노동당의 전략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 전개된 것으로써, 커다란 정치적·군사적 의미가 부여된 투쟁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38도선 이남에서 조직 전개된 게릴라전은 한국전쟁의 소시기 구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① 1950년 6월 25일~1950년 9월 15일(전쟁 발발과 북한군 남하기), ② 1950년 9월 16일~1950년 11월 24일(북한군 후퇴기), ③ 1950년 11월 25일~1951년 6월 10일(북한군 재진공기), ④ 1951년 6월 11일~1953년 7월 27일(전선교착과 정전회담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38도선 이북에서의 게릴라전 전개양상은 전황과 관련하여 시기를 조금 달리한다. 현재 북한학계에서는 38도선 이북지역에서의 게릴라전을 전쟁 2단계 시기와 3단계 시기에 집중 전개되었다고 이해한다. 이를 소시기로 구분하면 ① 1950년 9월 16일부터 10월 24일, ② 1950년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 ③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4월 21일이다.¹⁸⁾

38도선 이북에서 전개된 게릴라전은 전쟁국면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반면 남한에서 전개된 공산게릴라전은 계획된 게릴라전략을 전술활동이 따라가지 못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유격대 활동과 당조직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18) 강근조, 2000, 『조국해방전쟁과 인민유격투쟁』, 사회과학출판사, 244~248쪽. 강근조는 이 책에서 1950년 38도선 이북에서 전개된 유격투쟁만을 다루었다.

못했으며,¹⁹⁾ 게릴라 지도자들이 유격전술의 기본을 무시한 채 대부대 진지전을 취하여 역량 파괴를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²⁰⁾

38도선 이북지역에서의 게릴라전이 다소의 정치·군사적 성공을 거두었다면, 이남지역에서 전개된 게릴라전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동족상잔의 한을 남긴 채 끝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남한에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희생을 가져왔다.²¹⁾ 남한에서 출몰하던 게릴라는 비록 대규모의 거점 확보나 남한의 내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진압작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케 함으로써 취약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게릴라 소탕작전으로 말미암아 미군과 국군의 일부 부대는 기본전선 혹은 38도선 부근의 전략지점에 배치되지 못했다.²²⁾ 즉 대게릴라전에 동원된 국군과 경찰 병력은 총 9개 사단, 6개 유격대대, 10개 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그리고 경찰 29개 대대였던 것이다.²³⁾

1951년 4월을 전환점으로 38도선 이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격부대는 해당단위 당조직들의 지도 밑에 자신들의 투쟁을 승리한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전의 생활터전으로 점차 돌아갔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사정은 그와 크게 달랐다. 1955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지리산에 빨치산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공식 선포된 이후

19) 그 결과 산악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에 대해 당조직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통신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결과 당은 유격대에 대해 제때 필요한 지도를 주지도 못하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유격대에 일임하고 말았다. 당조직이 정보·연락기지, 보위기지, 식량 등의 보급기지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유격대는 물을 떠난 고기의 신세로 전락했다.

20) 유격전은 주동적인 병력의 분산과 집중, 치고 빠지는 기동전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 더욱이 한국의 산세는 높이만 높고, 폭이 좁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격근거지 확보와 대부대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21) 「중앙정보부 비망록 : 첨부 E 남한에 대한 현재의 작전(1950. 6. 19)」, 『FRUS』.

22) 1950년 11월 한달간 미 10군단은 총 109건의 습격을 받았다(일본 육전사보급회, 1977 『陸戰史集』 21, 原書房, 157쪽).

23) 정석균, 1988, 『對非正規戰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256쪽.

남한의 게릴라전은 민족사적 측면에서 그 어떤 역사적 의의도 확인 받지 못하였다. 결국, 수많은 청년과 농민들은 공비 또는 그 동조자라는 오명을 쓰고 집단적 죽음을 당한 채, 역사에 묻혔다.

한국전쟁은 기본전선에서의 전투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전국이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 제2전선에서의 게릴라전은 그 어느 전쟁보다 역할이 컸으며,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지역 주민의 지원과 호응 여부가 남과 북 혹은 반공게릴라와 공산게릴라 활동의 가능과 지속성 여부를 구분해 주는 척도였다. 즉 지역주민과 연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게릴라 활동은 오랫동안 버틸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과정에서 저질러진 양민학살 등의 문제가 또 다시 따라온다. 한국전쟁기 게릴라전은 분명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전쟁, 게릴라전, 게릴라, 북한군, 후방교란활동



<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NKPA's Guerrilla Warfare during the Korean War

Kim, Gwang-Oon

Existing studies on guerrilla warfare either focused on ROKA-KNP antiguerrilla activities or merely promoted guerrilla warfare by distorting and exaggerating its achievement.

The presence of guerrillas harassing the rear was vital to NKPA that fell far behind ROKA and UN forces in war potential during the Korean War. Communist guerrilla bands were not armed forces evolving from a spontaneous revolt, but were deliberately organized from the outset with the initiative of headquarters of the party.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exerted themselves to invest the war with the nature of "people's war," achieving success in proliferating guerilla wars across a broader region.

Guerrilla bands were organized on a regional basis: starting with the front vicinities including Gangwon-do and Hwanghae-do areas, they were gradually sprea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s the war proceeded.

North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the second front by mobilizing guerrillas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holding back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police forces. After the war was commenced,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attempted to set up the second front through guerrilla warfare.

As the war situation was reversed immediately after the Incheon landing by the Allied troops, guerrilla units were organized within each faction to

support the retreat of NKPA. However, with the outcome of these activities falling short of expectations, the commanding system of guerrilla bands was adjusted, giving birth to "Southern Bands." Since Southern Bands were organized by the leadership of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SKLP) regardless of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gradually changed their posture and started to devalue guerrilla combats staged within South Korea.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reorganized guerrilla bands into "productive guerrilla bands" and six units of "combat troops." The rear-harassing activities of guerrilla bands threatened the flank and rear of both US and South Korean armies through repeated attacks and road blockages, obstructing the ground connection between the US 8th and 10th armies. This embarrassed officials of ROK and the US, so their most urgent task became the demolition of guerrillas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e activities of guerrilla bands were greatly shrunken since the foremost front came to a standstill and some regular armies were actively mobilized to subjugate guerrillas, which didn't allow the previous status of guerrilla bands to be maintained. Around August 1951,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reinforced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reorganized guerrilla bands into company units by separating guerrilla bands from the party. However, the cease-fire all but nullified the significance of guerrillas' exist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front.

The guerrilla warfare developed north of the 38th Parallel was one of the factors that brought about a fundamental change of the war situation. In North Korea, it was based on residents' confidence in what they call "democratic reform" and a people's democracy, and thus served to strengthen the ties between the leader, the party, and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in the communist guerrilla warfare in South Korea, tactics didn't follow the planned strategies. It was conducted as a campaign without understanding the basics of guerrilla warfare and there wasn't any

organic combination of activities of guerrilla bands with those of the party. As a result, while the guerrilla warfare north of the 38th Parallel reaped substantial political, military success, those developed in the south took a heavy toll of lives and left behind lamentation over a struggle among the same races. Their activities imposed economic burdens on South Korea and cost military sacrifices although they turned out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clarifying the true nature of war.

Key Words : Korean War, Guerrilla warfare, Guerrilla, NKPA, Rear-harassing activities

K C I